

모비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확대... 글로벌 세일즈 속도 UP

올초부터 디지털 기술 홍보관 운영
기술철학 등 모빌리티 비전 공유
“맞춤형 콘텐츠로 영업 강화할 것”



현대모비스 디지털 기술 홍보관 내 주요 콘텐츠 화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랜선 여행을 즐기는 것, 온라인 상에서 유명 미술 전시회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을 높이길 원했다. 또 디지털의 힘을 빌려 누구나 자유롭게 양질의 콘텐츠를 즐기도록 했다. 웹 디자인과 그래픽 기술 등의 발전으로 직접 현장에 간 듯한 생동감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충분하다.

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산업과 기업 현장에서도 서서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왔다.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경영 관리, 홍보, 영업, 마케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오프라인보다 매력적이고, 고객에게 좀더 밀착할 수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았다.

국내 기업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영업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부터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기술 홍보관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홍보관’이란 이름의 이 공간은 홈페이지 상에서 누구나 접속해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철학, 콘셉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홍보관에 입장하면 2021서울모빌리티쇼, CES2022 등 굵직한 국내외 오프라인 행사에서 현대모비스가 소개한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인 엠비전POP과

엠비전2G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받을 수 있다. 엠비전POP은 ‘Smart-Phobility’라는 신개념 기술을 구현한 것으로, 차량에 스마트폰을 도킹해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스토리를 담았다. 엠비전POP에는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e-코너 모듈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차량이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해 막다른 길에서도 반대 방향으로 편하게 돌아올 수 있다. 차량이 좌우로 움직이는 일명 ‘크랩 주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행 주차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엠비전2GO는 현대모비스가 독자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탑재한 도심형 수소 모빌리티로 배달용 차량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홍보관 내에는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회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Mobis Business Connect’로 불리는 이 온라인 공간에는 현대모비스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소개돼 있다.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센서류와 제동, 조향 시스템, 라이팅 그릴, 스위블 디스플레이, 루프 에어백 등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내세운 신기술이 제품 동영상과 함께 자세히 나와 있다. 회원들은 이 디지털 공간을 활용

해 현대모비스 담당자와 원하는 날짜에 미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고객사와 직접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공간의 장점을 살려 고객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글로벌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가상 기술 전시회(Virtual Tech-Fair), 온라인 실시간 제품 프로모션, 핵심 제품 시연 영상 제작 등 언택트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차별화된 수주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용인 기술연구소 내 디지털 스튜디오(THE STUDIO M.)를 신설하고, 글로벌 고객사 대상 증강현실(AR) 런칭쇼, 온라인 스트리밍, 기술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고객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글로벌 영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이노텍, ‘KPCA show 2022’ 참가

‘FC-BGA’ 등 반도체 기관 혁신제품 공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정철동 사장, 개회사 진행 예정
FC-BGA 신제품 ‘휨현상’ 최소화



LG이노텍 본사 전경

LG이노텍

LG이노텍이 반도체 기관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LG이노텍은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KPCA show 2022)’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KPCA show 2022’는 한국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KPCA)가 주최하는 국제 PCB 및 반도체패키징 전문 전시회다. 국내외 180여개 업체가 참가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첫날 개막식에는 KPCA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이하 FC-BGA)기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등 3개 분야의 혁신제품을 공개한다. 특히 LG이노텍은 FC-BGA 기관 존에서 내년 양산 예정인 FC-BGA 신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AI,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DX기술을 FC-BGA 개발공정에 적용해 제품 성능에 치명적인 ‘휨현상(제조과정에서 열과 압력 등으로 인해 기관이 휘는 현상)’을 최소화했다.

이어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존은 최신 모바일용 무선통신 프론트엔

드 모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메모리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관을 선보인다.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RF-SiP용 기관을 비롯해,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FCCSP)용 기관, 칩스케일 패키지(CSP)용 기관을 전시한다.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존에서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이어오고 있는 칩온필름(COF)을 비롯해 2메탈 칩온필름(2Metal COF), 칩온보드(COB) 등을 내세웠다. 칩온필름과 2메탈 칩온필름은 스마트폰, TV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메인기관을 연결하며, 칩온보드는 신용카드, 여권 등에 사용한다. 특히 칩온필름은 LG이노텍의 독보적인 초미세 공법을 적용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인터스피치 참가... 논문 3편 발표

음성인식 개인화 위한 기술 소개

기술을 담은 논문 3편을 준비했다.

LG전자가 전세계 전문가들에 인공 지능 음성인식 능력을 한층 개선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음성인식 호출어를 고객이 원하는 단어 조합으로 등록,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호출어 인식’ 관련 논문 2편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화자 식별’ 등 고객 맞춤형 음성인식 기술 등이다.

LG전자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터스피치 2022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학회에서 LG AI연구원, LG유플러스와 함께 LG 통합 부스를 운영한다.

인터스피치는 국제스피치통신협회(ISCA)가 주최하는 음성처리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을 공유한다.

TV, 스마트 가전,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AI 기반 플랫폼을 소개하고, 냉장고, 정수기 등 생활가전에 적용된 음성인식 기능을 시연한다.

LG전자는 음성인식 개인화를 위한

/김재용 기자

현대차, 싼타페 연식변경... 신규트림 추가

주요 안전사양 전 트림 기본 탑재



현대차 2023 싼타페.

현대자동차가 싼타페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싼타페’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의 대표 중형 SUV 싼타페는 이번 연식변경을 통해 주요 안전 사양을 전 트림 기본사양으로 탑재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으로 구성된 신규 트림을 추가하는 등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양 구성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부터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1열 센터 에어백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람 등 안전사양을 기본화하고, 선택사양으로 운영되던 ▲LED 리어 콤비램프를 프레스티지 트림 기본사양으로 편성했다.

또 ▲1열·2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퍼들랩 ▲블랙 유광 필라 가니쉬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운전석 4WAY 램버서포트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충전 등 기존 싼타페 고객 선호 옵션 사양들을 한데 묶어 편성한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기아, FADA 완성차업체 만족도 조사 1위

(인도 자동차딜러연합회)

1000점 만점에 871점... 2위 현대차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신흥 자동차 시장인 인도 시장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는 인도 자동차 딜러들을 상대로 한 완성차 제조업체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는 인도 자동차딜러연합회(FADA)가 자동차 전문 컨설팅 업체 프론트아시아와 함께 지난달 1~3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승용차 양산’(4W

Mass) 부문 1위 및 전체 카테고리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승용차에서 양산과 럭셔리, 이륜차, 상용차 등 4개 부문 제조사 딜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아는 1000점 만점에 871점을 받아 평균 점수(719점)를 크게 상회했다. 현대차가 830점으로 2위였다. 승용차 럭셔리와 이륜차, 상용 부문에서는 볼보(919점), 혼다(736점), VE상용차(832점)가 각각 1위였다.

/양성운 기자